

'백자 달항아리' 남원서 첫 전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개막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유물인 백자 달항아리가 남원에 처음으로 전시된다.

17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관장 유지석)과 공동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조선백자>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국보급 문화유산의 지역 순회전'이다.

특히 지역 문화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고, 전시를 함께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전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 첫째, 조선 왕실의 자기였던 백자에 대해 소개하고, 둘째, 조선전기 관요(官窯)와 글자를 새긴 백자의 의미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

주 금사리 가마에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주로 제작된 달항아리를 선보인다. 전시실에는 달항아리와 영상을 함께 배치해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다.

주목할 유품로는 고 이견희 회장 기증 <국보 백자천지현황명발> 4점이 있다. 조선 전기 경기도 광주 관요(官窯)에서 생산된 왕실용 백자이며, 바닥면에 '천(天)' '지(地)' '현(玄)' '황(黃)'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천' '지' '현' '황'은 조선시대 초부터 마치 숫자나 알파벳처럼 기호로 쓰였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표시가 있는 백자는 대부분 왕실에 납품되던 것으로 추측된다.

화가 김환기는 "내 그림의 모든 선은 백자에서 나왔고, 내가 그리는 것은 모두 도자기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포스터

국립민속국악원, 홍보영상 공개

남원 전통성 · 국악 매력 담아 가족편 · 해금편 2편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이 홍보영상 2편 '가족편, 해금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국악원의 이미지 제고와 관람객 유치에 목표를 제작되었으며, 남원의 전통성과 국악의 매력을 담았다.

공개된 첫 번째 영상 '가족편'은 남원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휴일과 현대적인 일상의 모습을 담았다. 두 번째 영상 '해금편'은 국악단원의 공연과 일상, 출·퇴근 길, 직원의 업무와 공연 준비 모습 등을 영상에 담았으며, 향후 공연 및 체험 소개 영상 10여 편을 추가 제작하여 기관의 다양한 사업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의 전통 예술을 홍보하고자 한다. 특히 남원이 지닌 전통적인 매력과 국악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지역 홍보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립민속국악원 양영진 학예연구사는 "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기관과 남원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업 홍보와 함께 국악의 매력을 시민들께 전파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진행

22일 JMA FRIENDS '모탕 위 드로잉' ... 친환경 목공 프로그램 10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22일 오후 2시~4시 30분까지 JMA FRIENDS '모탕 위 드로잉'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현재 <버릴 것 없는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봉 작가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을 창작해 생산, 소비, 회수 및 재사용의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재활용의 결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버려진 폐목재와 지역의 유용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친환경 목공 프로그램으로, 사

건 건축물과 문화적 상징물을 종이로 구현한 전시 <PAPER+JAM>을 9월 22일까지, 버릴 것 없는 세계를 상상화하여 교환가치, 사용가치, 나아가 존재가치에 관한 질문과 대안적 상상을 제안하는 전시 <버릴 것 없는 전시>를 6월 30일까지 이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a.go.kr) 및 인스타그램(jeonbukmuseumofart), 페이스북(jmaseum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교육문화팀(063-290-686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친환경 목공 프로그램을 10팀 모집하며, 참여자 모두에게 제로웨이스트 키트와 컵받침 트레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시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28~29일 · 8월 30~31일 진행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6월 28~29일과 8월 30~31일 총 4회에 걸쳐 대공연장에서 '2024 무형유산 너나들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28일 오후 7시 30분과 29일 오후 4시에는 <생기부덕: 김반장, 박범태, 김세형>이 개최된다.

두 번째 공연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단체 <리워드 사운드>가 선보이는 <긴: 연희해체 프로젝트>로 8월 30일 오후 7시 30분과 31일 오후 4시 양일

간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운영된다. 6월 공연 예약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며, 8월 공연은 8월 20일부터 가능하다.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63-280-1500,1501)로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대 예술 분야와의 협업을 추진해 참신한 형태로 우리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해나갈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 초청 공연 관람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은 지난 15일 전주·완주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 150여 명을 초청해 전당 기획공연으로 마련한 어린이 뮤지컬 '달 사베트'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 초청은 문화 소외 계층 아동에게 폭넓은 문화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뮤지컬 '달 사베트'는 아동문화계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음악극으로 구성, 어린이들에게 이웃의 소중함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는 참여형 공연이다.

서현석 대표는 "이번 뮤지컬 관람으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기업 모집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은 161개사로, 각 기업(관)에 가족친화인증마크를 부여해 중앙부처(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및 금융기관(금리우대 등)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이 발굴한 도내기업 30개사가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는 의료, 숙박·체험, 외식·식품, 기타(교육 등)의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각 기업(관)에 부여된 가족친화인증마크를 제시하면 △건강

검진 10% 할인(기본, 프리미엄, 정밀검진) △숙박 및 체험 입장료 30% 할인 △외식 및 식품 구매 20%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제공기업은 11월경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협약을 맺고, 현판이 제작된다.

더불어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 카테고리에서 리스트가 등재되며,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가이드' 리플릿이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관)에 모두 배포된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참여 기업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생활균형지원팀(063-254-3820, 253-3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